

광주시, 코로나19 비상... 병상마련 총력

옛새간 확진자 45명 급속 발생
총병상 64개 중 가용병상 17개
전남·전북·대구 등에 지원요청

광주에서 최근 옛새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5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광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병상 추가 확보와 의료진 지원을 요청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발생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5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78명이며 이 중 32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46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옛새 만에 기존 확진자 수를 뛰어



2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입원 환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내원객들이 입구에서 발열 체크 등을 받은 뒤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5

넘을 정도로 확산세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병상 포화상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병상은 64개가 확보돼 있으며 전남대병원 7명, 조선대병원 5명, 빛고을전남대병원 35명(타시

도 1명 포함)이 입원해 있어 가용병상은 17개 뿐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상 추가 확보와 의료진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전남, 전북과 병상 확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5개 구청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건·간호 인력 전면 재배치를 요청했다.

광주의 확산세가 심상치않자 이날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의 병상 200개가 남아있다고 광주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광주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자 병상연대를 제안해 대구지역 확진자들이 광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시장은 "권영진 시장의 병상 제공 제안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며 "우선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남과 전북의 병상을 이용하고 필요할 경우 대구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동네방네

안동시, 시트지원사업 접수 한옥체험·호스텔업 등 대상

안동시는 오는 10일까지 '한옥체험업 등 시트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2년 차 사업으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에는 대상 범위와 예산액을 확대해 더 많은 사업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업 대상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되는 사업체로써 안동시에 등록된 한옥체험업, 관광호텔업, 호스텔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등이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상주 복숭아, 동남아 수출 이번주 1.5t 싱가포르 行

경북 상주 복숭아가 올해 첫 동남아 수출 길에 올랐다. 2일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 복숭아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목)은 올해 재배된 복숭아 수출 선적식을 했다.

이번주까지 동남아로 수출되는 복숭아는 1.5t으로 싱가포르 한국 농식품 전문 업체에서 판매된 예정이다. 상주시는 지난해 복숭아 160t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해 8억원의 수출 성과를 올렸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개교식.

AI 실무인재 본격 양성 인공지능사관학교 개교

광주시, 현판식·교장임명식 등
코로나19 우려... 간소하게 진행

광주광역시와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를 개교하고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2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용섭 시장, 김동찬 시의회 의장, 문인 북구청장,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기석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개교식을 가졌다.

당초 이날 개교식은 모든 교육생이 참여해 오리엔테이션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 따라 교육생은 참여하지 않고 현판식과 교장 임명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교육생 오리엔테이션도 전날 온라인으로 사전에 진행했다. 또, 시교육청에서 전날 2일부터 3일까지 각급 학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인공지능사관학교도 이 같은 시교육청 방침을 기준으로 삼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사관학교는 일찍이 지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가 강화되는 것에 대비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갖추고 있다.

교육은 서울에서 참신한 코딩교육으로 명성을 쌓아온 '멋쟁이사자처럼(대표 이두희)'이 주관한다. 교육생들은 매일 8시간 교육을 받고 11월까지 5개월 동안 8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선발시험에 앞서 모든 지원자들은 지난 5월 21일부터 4주간 멋쟁이사자처럼이 개발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코드라이언)을 통해 기본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정규수업 후에는 카이스트(KAIST) 인공지능연구실 박사과정 출신들이 공동 개발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엘리스'를 활용해 자기주도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엘리스는 SK그룹, LG그룹, 서울대, 카이스트 등 50여 곳의 주요 대기업과 대학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8월까지 인공지능 알고리즘, 머신러닝,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중·고급 과정을 320시간 이수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 특화산업과 공공 분야를 주제로 480시간 동안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실습을 진행한다. /광주=김태수 기자

110년 역사 낙동김 신제품 개발 '청신호'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연구협약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국립수산물연구원 남해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와 낙동강하구에서 생산되는 '낙동김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국립수산물연구원 남해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신제품을 개발하고 보존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낙동김은 1910년대부터 가덕도와 사하구 사이에 위치한 어장에서 양식을 시작해 110년의 역사를 지닌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이다. 부경대 영남씨그랜드센터의 '낙동김 고도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동김은 어장 내에

용존 무기질과 인이 많아 해조류 성장에 최적의 어장환경을 가지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조단백, 당근, 아연, 타우린, 총페놀화합물, 엽록소a가 높게 함유돼 성분과 색채, 부드러움이 뛰어나다. 낙동김을 생산하는 부산지역은 쿠로시오 난류 영향권에 있어 국내 김 양식어장 중 해수면 수온이 제일 높아 온난화를 대비해 고수온 내성을 가진 김 종자 개발과 시험 양식을 위한 최적지로 꼽힌다.

강효근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신제품 개발과 보존이 실현된다면 낙동김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 김산업의 지속성장 발전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의원 기자 bsmorning@

전남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올인

올 650호 2년내 1000호 지정 목표

전라남도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0호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해까지 388호를 지정했으며, 올해 650호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자발적인 가축 사양관리를 비롯 축사 정리정돈,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 조화 등 축산환경이 우수한 농장을 말한다.

지정을 희망한 축산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할 경우, 시군의 서류심사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다. 지정은 5년간 유효하다.

특히 지정된 농가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과 현대화사업, 약취저감시설 지원사업 등 축산정책사업에 우선



장성 든해솔농장 /전남도청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오는 2022년까지 1천호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축산농가는 환경 개선으로 경관, 약취 등을 잘 관리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수능 기자 ysn6313@

“주민세재산분 신고하세요” 예천군, 31일까지 신고접수

예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 1㎡당 250원의 세율이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사업장 면적 1㎡당 500원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다. /예천(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경북교육청, 원격수업 분석 정책·지원현황 웨비나 개최

경북교육청은 오는 6일 지금까지의 원격수업을 되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원격수업 방안을 탐색하는 '경북형 원격수업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북형 원격수업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웨비나는 경북교육청의 원격수업 정책과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내실 있는 원격수업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경북=문봉현 기자